일본 OJT연수 보고서

정치외교학과 201521976

임예지

OJT 프로그램은 일본 회사인 다이코 회사에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단기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타 프로그램과 달리 실제 일본인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일본 기업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본 유학시절, 일본 취업에 대해 고민 중이던 저는 OJT 단기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실제 일본 취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일본회사에서 취업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본에 취업하기 앞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한국과는 다른 일본이라는 환경에, 과연 일본 기업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는 다른 일본 문화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노동환경은 어떠하며, 현재 일본 기업의 한국인 취업 현황은 어떠한 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자 OJT 단기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OJT 프로그램은 총 4일간 진행되었으며, 첫째날에는 다이코 회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언어기술, 우선순위에 대한 연수를 받았으며, 둘째날에는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교육, 셋째날과 네째날에는 프레젠테이션 준비와 발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1. 언어기술과 우선순위

언어기술 훈련은 그림을 보고 어떠한 그림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없는 상대에게 ‘말’,’언어’만을 가지고 설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언어기술 훈련은 처음 접해본 생소한 훈련이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림 안에 있는 구름에 대해 상대에게 설명할 때, 단지 ‘기본적인 구름의 이미지를 그려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설명을 들은 상대의 그림은 제가 의도했던 구름의 모양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범했던 실수는 상대가 필요해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전해주고 싶은 정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단지 제 시선에서 설명을 하려했던 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이지만, 항상 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상대에게 ‘언어’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한다면 상대방이 제가 의도한 이미지와는 다른 이미지를 그리는 오류를 범하게 할 것이며, 전체적인 업무의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훈련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의 입장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깨닫고, 이러한 것들이 정보전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훈련은 우선순위, 방침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推察ゲーム를 하였는데,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주어진 물품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처음 주어진 12개의 물품에서 12개의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할 때는 막막했습니다. 12개를 어떠한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2개의 순번을 1번부터 12번까지 차례대로 순번을 매겼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과제를 끝내고 담당자이신 와타나베씨께서 방침과 동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침을 정하고, 큰 부분으로 분류를 하여 그 안의 작은 단위에서 순번을 매긴다면 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한 2명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의견 통일을 한다면 오차가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훈련은 팀을 이루며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기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시선에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를 적용하기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좀 더 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 서비스, 컴플라이언스

 둘째날은 서비스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일본의 소비자들은 곧게 자란 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생산자는 곧은 무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비스란 자신이 무엇을 전달해주고 싶은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기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의 기준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설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서비스의 일관성은 고객의 신뢰, 믿음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를 보면 어느 국가에서나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한 메뉴와 가격,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은 어느 곳의 맥도날드이든 안심하고 이용할 있다는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관성을 바탕으로 안심과 신뢰감을 전달해주는 것 또한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사건이 종종 방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유출사건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의 한 부분은 컴플라이언스의 위반일 것 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법령준수를 뜻하는 것으로 기업의 존속을 위해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의 범위는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부터 기업, 회사 내의 규정을 준수,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위반하지 않는 것까지의 넓은 범위까지 아우르는 개념이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이유는 법령을 위반하였을 시, 법적인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위의 예와 같은 정보유출 사고시 기업이 아닌 사회전체에 약영향을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행동이 회사 혹은 사회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 발표준비

셋째날에는 연수의 마지막날 있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 유학시절 일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경험이 있어 일어로 발표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으나, 경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대본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구성은 연수기간 동안 배운 것,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10년 후의 나, 이렇게 세개의 주제가 주어졌고, 대본을 작성한 후 와타나베씨에게 검토를 받은 뒤, ppt를 만들며 마무리하였습니다.

1. 발표

 발표 준비를 하며 대본을 작성했지만, 짧은 시간에 이를 외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본을 외우기보단, 대본을 보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앞을 보며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사장님께서 참석하여 더욱 긴장이 되었지만, 큰 실수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실제 일본 기업에 출퇴근하며 여러 과제를 수행하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취업 준비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있기에 적응하며 일본에서 생활하고 취업한다는 것은 쉽지않은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OJT를 통해 느낀 일본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한국과는 또 다른 기회와 선택지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OJT 연수를 했던 다이코 회사 내에도 재직 중인 한국인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 또한 저와 같이 인문 사회계열이었지만, 현재는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공자들만 채용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비전공자라도 취업이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는 더 넓은 혹은 다른 기회와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일본 취업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히 어떠한 선택을 할지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번 OJT의 경험을 통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